

“새천년 정신문명 이끄는 진리의 수레”

5

1994-1999
현대불교 창간 5돌

현대불교신문 창간 5주년을 맞아 불교계는 물론 종교계와 함께, 정부등에서 축하메시지를 보내왔다. 해외의 불교단체에서도 메시지를 보내와 창간 5주년을 축하했다. 각계의 지도자들은 불교의 가르침을 널리 펴고, 종교간의 화해와 협력, 사회 발전을 이끄는 목적이 되어주길 당부하는 한편 더욱 정진해 신뢰와 권위를 지닌 신문으로 발전하길 기원했다. <편집자 주>

중생에 감로법을 주는 포교사

탄성 조계종 원로의장



현대사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다변화 그리고 그 변화 속도의 빠름입니다. 그렇다보니 어떤 때는 자기를 잃어버리고 시간에 몸을 맡기는 꼴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때 부처님의 가르침은 더욱 절실합니다. 현대불교신문은 불자들의 신심을 강화하고, 혼돈하는 중생들에게 감로수를 뿌려주는 법음입니다. 정진하길 기원합니다.

대중교화·사회정화에 큰 몫

인국 태고종 총무원장



그동안 한국 불교언론의 창달과 발전에 그 선도적 역할을 해오면서 사회정화와 대중교화에 정진해온 귀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1세기에든 변함없이 한국불교의 발전은 물론 사회와 대중에게 희망을 주고 안락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자비의 포교사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윙고 그름 가리는 정문지 기대

운덕 천태종 총무원장



다가올 21세기의 불국정토 건설을 위해 더욱 매진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느 한 종단이나 한 분야에 편향되지 않는 열린 눈으로 한국불교 전체를 조망하며, 불교의 발전을 위해 진념해온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불전부담한 가운데 윙고 그름을 가려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윙고 것은 더욱 북돋아주는 정문지로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시대정신 선도할 희망의 복전

성초 진각종 통리원장



금강같이 굳은 믿음과 정진으로 창간 5주년을 이룬 '현대불교'는 우리 불교계의 새로운 희망입니다. 창간 5주년을 맞이하기까지 초발심으로 지향해온 불교의 대중화운동에 앞장서온 것은 참으로 위대한 여래정신의 소산이라 하겠습니다. 다양하고 다변화된 시대,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널리 전해 불교가 새로운 시대의 정신문화를 선도할 중심으로 부상하기까지 현대불교가 앞장서줄 것을 기대하며 희망의 복전이 되기를 서원합니다.

사바서 피안으로 가는 길잡이

홍파 관음종 총무원장



현대불교신문을 펴면 오늘의 한국불교를 볼 수 있다. 공평하고 정확한 불교사회의 언론을 읽을 수 있다. 생동하는 불교계 소식과 보살행원의 선지식을 만날 수 있다. 5년여의 짧은 시간에 한국불교의 현대화 생활화 세계화의 초석을 놓았다. 마음공부로부터 현대사회의 안목이 되고 차안의 사바에서 피안의 정토로 건너는 신문이 되기 바란다.

기쁘게 권하는 자랑스런 신문

광우 전국 비구니회장



현대불교신문, 법의 향연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신도들에게 기본 마음으로 권할 수 있는 신문이라고 자부합니다. 현대불교신문의 지난 5년은 우리 불교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신심깊은 현장을 글로 옮겨 불교를 실행하는 기쁨을 함께 나누게 해주었습니다. 우리 불교에 현대불교신문이 있음이 자랑스럽고 앞으로도 더욱 정진해 불자들에게 사랑받는 신문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대중공의 터전 불교발전 기여

서문각 대한불교 진흥원 이사장



현대불교신문은 지난 5년동안 모든 중생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신함에 보탬이 되는 수승한 가르침을 퍼기위해 노력해왔다고 생각합니다. 21세기 정보화시대를 앞두고 현대불교신문은 불교를 위한 공의의 장이 되도록 더욱 정진하기를 당부합니다. 현대불교신문만의 고유한 색깔을 바탕으로 다시 창간의 정신으로 돌아가 더욱 좋은 신문으로 거듭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삶의 가치 일깨우는 목탁 축원

정진석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현대불교신문 창간 5주년을 맞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들은 물질만능주의 사조에 휘말려 영성적인 가치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천년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현대불교신문이 불자들뿐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바른 삶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사회의 목탁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종교간 화해·협력 이끌 안내자

김동완 한국기독교교회협 총무



종교는 화해를 위해 있습니다. 일치와 화합의 차원에서 통일, 인권, 생태계 회복 등은 종교인이 앞장서 구현해야 할 가치입니다.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정신은 궁극적인 선입니다. 현대불교신문이 종교간의 화해와 협력을 드높이는 길잡이가 되어주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법으로 화합의 장 펴길

박지원 문화관광부 장관



지난 94년 10월 15일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라는 큰 뜻으로 창간한 이래 현대불교신문은 부처님의 정법을 이 땅에 널리 펴는데 크게 기여하여 오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새로운 천년을 앞두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갈등을 극복하여 국민화합을 이루는 일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현대불교신문이 불교계의 힘을 모으고 지혜를 펼치는데 앞장서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祝現代佛敎創刊五周年
應無所住而生其心
東國學園理事長 吳綠園

녹원스님 축하 휘호

◇금강경에 있는 부처님 말씀으로 "응당 그 머무르는 바 없이 마음을 날리어 다라는 뜻으로 불자는 모름지기 어떤 일을 도모하는 자신의 마음에 생색을 내려는 마음을 갖지 말고 청정하게 자신을 깨닫기 비운 심정으로 법을 위해서 시혜(施惠)하라는 의미.

불교의 생활·현대·세계화 지속

송석구 동국대학교 총장



1600년의 전통을 지닌 한국불교를 오늘에 되살리려는 현대불교의 높은 사명감에 경의를 표합니다. 한국사상의 근원으로서 한국불교는 한국인의 자존심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불교의 현주소는 새로운 밀레니엄의 시대에는 새옷을 입고 새롭게 태어나야 함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현대불교신문이 표방한 한국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는 새 천년의 화두로 삼아 더욱 정진하기를 기대합니다.

불자의 알 권리 충족시켜줄 신문

백창기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사회의 발전의 모습은 그 사회의 언론의 자주성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한국불교의 미래도 불교언론의 현재 모습을 보면 가늠할 수 있습니다.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를 추구하는 현대불교신문이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며 불자들에게 참된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정문지로써 그 역할을 다 해주기를 바랍니다.

2천년대에도 등불될것 믿어

박광서 재가연대 공동대표



현대불교는 이제 나이 다섯밖에 안된 신문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을 만큼 우리 불자들에게 익숙해져 있고 기다려지는 신문이다. 편안하지만 느슨하지 않고, 중도적이지만 결코 무디지 않은 불교의 열정을 풀어주기 때문이라. 2천년대 불교언론의 등불이 되어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해외서 온 메시지



▲싱가포르(FWBO 회장·영국)=영국의 모든 불자들을 대표하여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로 불법을 전파하는 현대불교에 축하의 인사를 보냅니다. 현대불교가 세계적으로 불법과 평화의 전파하는 대업에 일조할 수 있도록 지지를 보냅니다.

▲조성 원각(티벳명정부 의무보좌관)=인도의 티벳명정부는 현대불교신문의 창간 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앞으로 저의 정부가 가상공간에 개설한 티벳센터와 현대불교신문의 부대피아가 긴밀한 관계를 유지, 양국의 불교 발전에 공헌하기를 바랍니다.

▲그렘 리운(남부웨일즈불교우의회 회장·호주)=한국인 친구에게서 한국사회와 불교전통이 매우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혁신적인 의미에서의 불교적 가르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현대불교가 이러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페마 초드론(캄보디아총장·미국)=현대불교의 창간5주년을 축하합니다. 부처님의 법을 통하여 바른 삶의 길을 제시하고 21세기의 비전을 보여주는 역할을 담당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찰스 몰라(토요카쿠엔대 교수·일본)=현대불교가 한국불교도뿐 아니라 다른 종교인들을 위해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다 잘 이해시킬 수 있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고 확신합니다. 5주년을 축하합니다.

▲필립 글래스(영국인·영국)=신행의 길잡이 및 포교

“세계로 열린 불교정문지 평화와 불법 온누리 퍼길”

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온 현대불교의 창간 5주년 소식을 접하고 무척 기뻐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에 따르면 불법을 전파하는 것은 곧 대중을 환상시키고 복지를 이루며 세계를 구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현대불교의 성공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프레드 울프(켄트 호케 시인·독일)=한국에서 불교문화가 창달하는데 이바지해 온 현대불교의 창간 5주년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현대불교의 편집자와 독자 모두의 깨달음을 기원하며, 현대불교가 평화와 행복에 커다란 기여를 하리라 확신합니다.

▲다년자이 차빈(위빠사나 연구소 수석연구원·인도)=현대불교신문의 창간 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국에서의 현대불교신문은 사부대중을 포교하며 세계평화와 번영을 이끌기 위한 안내자로서 성실히 노력해 왔습니다.

▲비하를 시카(불교학연구소 소장·네덜)=창간 5주년 소식을 접하니 먼저 말과 마음으로 축하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치심 영원토록 전하여 중생을 교화함에 다함없길 기대합니다.

▲마사코 에마 와타나베(일본문화교류센터 연구원·일본)=칭찬한 법음을 온누리에, 일본문화교류센터를 대표해 축하드립니다. 한국불교 세우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귀신문의 창간 5주년을 축하합니다. 지속적으로 부처님의 등불이길 기원합니다.

▲리드 말콤(캘리포니아대 교수·미국)=인터넷으로 귀사의 신문을 열람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한국어 실력이지만 매호마다 질적으로 충실한 내용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기를 맞아 세계로 열린 불교발전을 위해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언제나 '새로운' 부처님 가르침!
더욱 새로워진 모습으로 전하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 창간 5주년을 축하합니다.”

사단법인 대한불교 원웅종

종 정 영 산 일 공

원로원장 황 법 운 승정원장 송 보 인 고시위원장 최 법 신

총무원장
총무부장 장 채 승
사회부장 임 보 광
재무부장 박 대 월
교육부장 이 체 원
포교부장 주 체 법
총무국장 이 체 인
규정국장 박 체 성
사업국장 강 체 도

종의회 의장
부 의 장
사정원장
포교원장
문화원장
중앙비구니회회장
종정 사서실장

조성관
김 인 관
민 성 운
조 성 견
김 선 진
박 대 월
임 체 관

각 시도 총무원장
인천광역시 장 체 승
충청남도 김 체 의
강 원 도 류 무 송
경상북도 손 지 관
경상남도 최 천 호
전라남도 이 정 광